

4과. 흠어지는 교회: 삶이 예배로

하나님 마음 알기

- 일터가 교회다 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생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일터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일터가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하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어야 합니다.

일터를 사역지로 가꾸는 것은 허락하신 일을 탁월하게 해냄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로서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이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편함을 자초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필연적으로 용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그 용납의 관계가 내 일상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만나교회에는 '한 켄 치고 헌금'이 있습니다. 원리는 재미있고 단순합니다. 부활절이면 교인 모두가 부활란을 나누는 전통이 만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부활절 무렵 여러 이유로 달걀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때 달걀을 구매하므로 심지어 사재기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전통을 따라 부활란을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활란 먹고 나눈 켄 치고 그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켄 치고 헌금'이 탄생했습니다. 이 '한 켄 치고 헌금'은 미리 광고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에 예고 없이 알려져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운동은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함인지,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용납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찾기

1.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교회와 개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 뛰어넘기

1.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 즉 일터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2.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기도제목